

조선 후기 신흥 양반주거의 연속적 공간 특성*

Characteristics of Connecting Space in Emerging Upper Class Houses of later Chosun Dynasty

Author 박형진 Park, Hyung-Jin / 정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부교수

Abstract It is commonly known that upper class house in Chosun Dynasty has characteristics of connecting space in combination with 'Chae' and 'Madang'. But living territory of traditional residence is connected each other by means of the necessity of dwelling life. So, it can be a fragmentary understanding about traditional houses to consider it as connecting space only from the viewpoint of visual perception. Residential space in later Chosun Dynasty is affected by practical life-style rather than building principle of 'Confucianism' due to the erosion of the caste system and the spread of the modern residential culture.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welling life at that time in order to underst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ces. Researcher made an assumption that these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in the emerging upper class houses which appear in the process of change of the caste system rather than the traditional upper class house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connecting space from 'Bakat-ma-dang' to An-ma-dang of the emerging upper class houses in Gyong-gi provinc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perties of connecting space related to dwelling life of the emerging upper class houses in Gyong-gi Province. With this study, the followings are the characteristics of connecting space in emerging upper class houses in later Chosun Dynasty. First, 'An-ma-dang(Courtyard)' comes into close contact with 'Bakat-chae(Outer quarters)' which accommodate the complex functions, 'An-ma-dang' plays an mediating role between 'An-chae' and 'Bakat-chae' Second, 'Bakat-chae' generally encases 'An-ma-dang' which is central territories of dwelling life, and the men's area of 'Bakat-chae' considerably has opening space towards the outside. Third, 'Anmadang' plays an mediating role of male's and female's living territory,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necting space where labor forces are concentrated.

Keywords 조선 후기, 경기지역, 신흥 양반주거, 안마당, 연속적 공간
Later Chosun Dynasty, Gyong-gi Province, Emerging Upper Class house, An-ma-dang, Connecting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선시대 주택은 비대칭적 배치와 평면, 채와 방의 분화, 성(性)에 따른 분화, 신분적 공간구분, 위계적 공간구성을 지니면서도 각 공간들이 연속적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다. 전통 주거의 연속적 공간 특성과 관련하여 학자 주남철은 인간의 동선에 따른 장면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통주거는 바깥행랑마당, 행랑채(솥을대문), 행랑마당, 중문간행랑채, 사랑마당(안마당), 사랑채(안채)로의 진입에 따라 연속된 공간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전통주택의 연속적 공

간 특성은 일반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1)

하지만 조선시대의 주택은 엄격한 신분제도, 내외법(内外法) 등의 유교적 관습과 주거 문화를 반영하여 남녀의 생활영역, 주종(主從)의 생활영역이 담장, 중문 등의 건축적 장치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남녀의 생활 영역, 주종(主從)관계 등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 주생활 공간을 시지각적 관점으로만 연속된 관계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주남철 역시 주거내 동선의 진입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속된 공간임을 실감할 수 있지만 각 공간은 서로 격리된 듯하다고 하여 전통주거의 영역의 구분, 공간의 단절성을 암시하고 있다.2)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통주거의 일면에 나타나는 공간의 연속적 특성은 주생활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4, pp.256-266
2) 위의 책, p.257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 공간의 연속성은 주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근대건축의 라이트와 헤링의 주택에 나타나는 공간의 연속성은 거주인의 체험이 근대의 재료와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다.³⁾ 유사한 관점에서 채와 마당으로 분리된 각 전통주거의 생활영역은 주(主)생활의 필요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부연하면 조선시대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주생활을 반영한 각 공간들은 남녀, 세대(世代) 등의 가족 관계, 또는 주종(主從) 관계에 따라 거주와 작업 활동 등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 긴밀히 연결되기도 하며, 서로 닫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는 전통 주거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당시의 봉건적 신분제도의 변화, 근대적 주문화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유교의 조영원리보다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주거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통 사대부가의 주거보다는 당시 봉건적 신분제의 변화 과정에서 등장한 신혼 양반주거에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즉, 지역별 민가의 특성을 토대로 발전한 이들의 주거에는 유교적 조영원리에 의한 남녀 공간의 분리 현상, 주종관계에 의한 공간의 단절보다는 실용적인 주생활을 위한 연속적인 공간 구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조선 후기 신혼 양반주거에 나타나는 연속적 공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개항을 전후한 시점에 건립된 경기지역 신혼 양반층의 주거에 나타난 연속적 공간 특성을 파악하였다. 신혼 양반층은 조선 후기 근대화 과정에서 기존 양반계층의 분화 과정⁴⁾에서 권력에서 소외된 지방 향반, 상민에서 부를 축적하여 양반으로 신분이 격상한 부농, 중간계층으로서 향리(鄕吏), 공인(貢人), 여각주인(餘角主人), 객상주인(客商主人) 등을 의미한다.⁵⁾ 기존 양반층과 달리 이들은 농업, 상공업 등의 생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력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역 민가를 원형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생업과 관련된 작업 활동이 가사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는 주거공간의 구조적 변화로 나타났다.⁶⁾ 따라서 이들 주거에는 남녀관계, 주종관계에 의해 생활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

는 기존 상류주거의 특성보다는 실용적인 공간 특성이 나타났다.

특히, 당시의 경기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으며, 후기의 상업적 농업의 발달 등에 의해 다양한 출신성분을 지닌 양반층이 급증하였다.⁷⁾ 그 결과 현존하는 경기 지역의 중상류 주거의 상당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반 지위를 획득한 신혼 양반의 소유로 추정된다. 이들의 주거는 안채와 바깥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 ㅁ자형의 민가를 원형으로 발전하였다.⁸⁾ 여기서 바깥채는 대문칸, 사랑방, 부속채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깥채의 각 영역에서 안마당으로의 접근성이 증대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전 상류주거에서 안마당이 여성의 전용공간으로서 남성영역과 분리되는 경계적 역할을 하였다면 이들 주거에서 안마당은 주생활의 중심영역으로서 남녀관계, 주종관계에 의해 구분된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⁹⁾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에 현존하는 신혼양반의 주거로 추정되는 사례를 통해 바깥채와 안마당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연속적 공간특성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례는 안채와 바깥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결합된 ㅁ자형으로 구성된 신혼 양반주거를 선정하였다. 이들 주거는 외부 바깥마당으로부터 바깥채-안마당-안채-뒷마당의 연속된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부공간인 바깥마당에서부터 바깥채를 지나 안마당으로 이어지는 공간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남녀간, 주종간 생활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된 기존 사대부가와의 차이점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구체적으로 2장 1절에서는 조선 후기의 근대적 상황에서 출현한 경기지역 신혼 양반주거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민가를 원형으로 발전한 이들 주거의 상류지향적 성격과 함께 바깥채의 복합적 기능 수행, 안마당의 성격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2절에서는 조선 후기 경기 지역에 건립된 전통 사대부가 주거의 특성을 신혼 양반주거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기존 사대부가의 여성 전용공간인 안마당으로 인한 안채 영역과 사랑채 영역 사이의 공간의 단절 현상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경기지역에 현존하는 3채의 신혼 양반주거를 통해 바깥마당, 바깥채, 안마당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연속적

3) 헤링은 목적에 맞도록 내부로부터 공간이 조성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부터 형상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Heinrich Klotz, 양동양 편역, 현대건축론, 1984, p.37

4) 조선 초기 비교적 확고했던 양반의 지위는 1800년 순조 즉위 이후 별열(閥閥) 정치가 시작되면서 권력을 독점한 양반층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고 이외의 양반계층은 경제력에 따라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5) 안병태, 한국 근대 경제와 일본 제국주의, 백산서당, pp.163-190

6) 최일, 조선 중기 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p.20

7) 18-19세기 조선에서 양반호의 격증, 상민호의 감소, 노비호의 격감 현상은 양반층의 경제력 및 가사운영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위의 논문, p.21

8) 조성기는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바깥채로 구성된 ㅁ자형의 배치 형태를 서울, 중부형 민가의 완성형으로 보았다.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아카데미, 2006, p.211

9) 안마당의 성격 변화는 노비호의 격감으로 인해 가족단위의 주생활에 유리하도록 주거공간이 변모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민가는 안마당을 매개로 한 가족생활에 적당한 규모로 계획되었다. 위의 책, p.222

부터 안채, 뒷마당에 이르는 연속된 공간을 형성한다.

바깥채는 주택의 전면에 위치하여 외부공간인 바깥마당과 접하며, 주거 내부와는 안마당과 접한다. 일반적으로 바깥채는 남성의 거주영역, 대문칸, 살림을 위한 부속영역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큰 규모로 지어진다. 거주영역은 주인의 사랑영역과 필요한 경우 행랑방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사생활에 필요한 광, 헛간 등이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랑영역은 주택의 전면에서 퇴칸 구조를 지니며, 출입문 상부에 홍살을 설치하는



<그림 2> 안채 후면의 뒷마루, 쪽마루의 발달



<그림 3> 안마당에 개방된 바깥채의 광, 행랑

등 상류지역 사랑채의 보편적 유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¹⁸⁾ 한편 행랑영역, 헛간, 광 등의 부속영역은 안마당으로 열려 있어 안마당이 실용적으로 발달하였다.

<그림 3> 부연하면 바깥채는 안마당과 접하면서 일부 생업과 관련된 실들의 개방성이 증대되었고 이들 주거의 안마당은 기존 사대부가의 그것과 다른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요컨대 신혼 양반주거에서 안마당의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바깥채의 사랑영역과 광, 헛간 등의 작업영역은 안마당으로 열린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안마당은 가족의 주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심영역으로 발달하게 되고 여성영역은 뒤안(뒷마당)으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내 남성과 여성의 영역 구분은 모호해지고 안마당을 중심으로 가족의 노동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안마당으로의 주생활의 집중 현상, 이로 인한 남녀 영역의 연속된 공간 구성은 부의 축적에 의해 가옥의 규모가 성장한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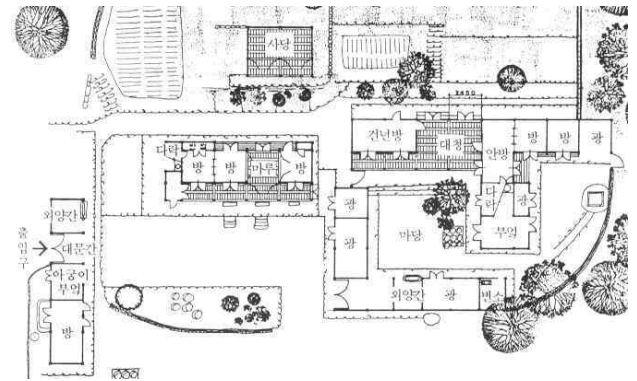
2.2. 기존 사대부가의 주생활과 안마당의 역할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18세기 이후 등장한 신혼 양반은 당시의 농업기술의 발달과 경영방식의 변화를 통해 신분제도의 혼란을 틈타 양반계급을 획득한 농민, 중간관리 출신의 새로운 상류계층이다. 기존 전통사대부의 주택이 엄격한 유교적 이념에 바탕을 하여 조영되었고 주생활의 상당 부분을 노비의 생산력에 의해 의존하였기 때문에 노비의 거주와 노동을 위한 공간이 함께 발달하였다. 반면에 이들 신혼 양반계층의 주거는 농업 등의 주생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18-19세기 노비의 급감 현상으로 인해 행랑방이 감소하고 가족단위의 가사운

18) 갑오경장 이후 신분제가 철폐되고 민간 주택의 가사규모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신혼세력들은 양반주거를 모방하고 새로운 공간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홍영욱, 한국주거사, 민음사, 1992, p.278

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¹⁹⁾

당시 경기지역은 수도인 한양과의 지리적 관계상 권력에서 물러난 사대부 출신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이들의 주생활은 농업 등의 생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축적된 부를 기반으로 노비들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는 안채, 사랑채 이외에 독립된 대문간채, 부속채(행랑방, 광), 사당채 등이 존재하여 유교적 조영방식에 의해 복합적인 공간 구성을 취하므로 신혼 양반주거와 공간 구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선 후기에 건립된 기존 사대부가 주거의 사례에 나타나는 공간적, 주생활적 특성을 신혼 양반주거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림 4> 여경구 가옥 평면도

위의 여경구 가옥은 18세기 중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형적인 사대부가로서 후기적 양상²⁰⁾을 지니면서도 전통적인 조영방식으로 지어졌다.<그림 4> 이 가옥은 별도의 대문채에 노비들의 거주를 위한 행랑 영역을 두었으며, 축적된 부를 적재하기 위한 부속채, 유교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사당채 등이 별도의 채로 구성되어 복합적 공간 구성을 취한다. 이러한 구성적 특성은 경제적 한계로 인해 주거의 대부분이 안주인이 거주하는 안채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바깥채로만 구성된 신혼 양반주거의 특성과 다른 점이다.

또한 전통적 조영방식을 따라 여성 영역으로서 안채는 가장 안쪽에 자리하며 부속된 안마당과 뒷마당으로 위요되어 있다. 안채의 안방과 건넌방은 도리 방향으로 확장, 분화하여 안주인을 비롯하여 대가족이 거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안주인의 생활영역은 안채와 안마당, 뒷마당으로 엄격하게 한정된다. 안마당 전면에 위치한 ㄴ자형 부속채를 경계로 하여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됨으로써 바깥주인과 안주인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이들 주거에서 사랑채는 반(半)사회적 영역으로

19) 당시의 외거(外居)노비는 거의 소멸하고 솔거(率居)노비는 대지주나 세도가층의 특수층에 한정되어 존속하게 되었다. 조선사연구회, 새로운 한국사입문, 돌베개, 1983, pp.235-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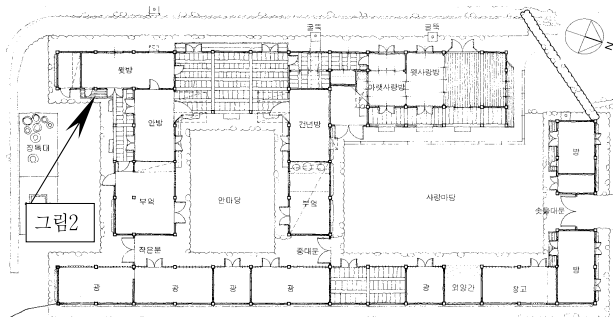
20) 이 주택은 안채와 사랑채는 대부분 1고주 5량 형식으로 퇴칸의 생성이 용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가 도리와 보 방향으로 분화, 확장하는 전형적인 후기적 양상을 보인다.



<그림 5> 사대부가 여성전용 공간인 안마당(여경구가옥)

문벌중심의 양반사회의 결속을 위해 확장되고 화려해진 반면에 안채는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생활의 기능이 집약된 가정적 공간으로 움츠러들게 된다.²¹⁾ 그 결과 안마당은 여성의 전유 공간으로 발달하게 되며, 바깥주인과 남자하인의 접근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었다.<그림 5>

아래의 정용채 가옥은 전통적인 양반주택의 조영방식에 따라 1887년 건립된 경기도 화성지역의 상류주거이다.<그림 6> 이 가옥에서 사랑채와 안채는 붙어 있으나 각각 독립된 마당을 소유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영역은 분리되어 있다. 사랑채는 대문간 채와 분리되어 별도의 사랑마당과 함께 독립된 남성영역을 형성한다. 대문간채의 아래 두 칸에 하인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랑마당은 바깥주인의 영역임과 동시에 남자 하인의 작업 영역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 거주인의 생활영역의 분리는 같은 지역 사대부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²²⁾ 즉, 사랑채는 주거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으로 고착화되었으며, 주생활의 중심 공간으로서 안채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림 6> 정용채 가옥 평면도

이 주택에서 사랑마당과 면한 안채 영역은 중간대문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생활의 측면에서 남성영역과 여성영역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안마당은 사랑영역과 중문의 개방에 의해서만 연결될 뿐 완전히 분리되어 폐쇄적으로 구성된다. 이 주택에 나타나는 안마당의 독립적, 폐쇄적 특성은 조선 시대 양반주택의 전통적 배치를 따른 것으로 조선 초기 내외법

21) 16세기 이후 주거의 평면구조는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안채에서 사랑채 중심으로 변해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조선 후기 전통주택의 남녀영역의 구분은 남녀유별사상과 내외법 등에 의한 전통적 조영원리에 기인한 뿐만 아니라 가정내 주생활의 중심 영역으로서 안채의 발달에 반(半)사회적 영역으로서 사랑채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분화된 결과이다. 김종현, 주남철,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2

22) 이러한 현상은 조사 대상 가옥인 이조판서 조석우가 건립한 김영구 가옥(1860), 철종 외가(1850), 정영대 가옥(1753), 궁집(18세기 말엽)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內外法)에 의한 유교적 조영원리, 가정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조선 후기 이 지역에 건립된 사대부가에는 유교적 관습, 생활 방식에 의한 남녀간, 주종간의 공간적 단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선 후기 상류주택의 연속적 공간 특성

3.1. 사례선정 및 분석방법

(1) 사례 선정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경기지역 신흥 양반주택의 사례를 통해 연속적 공간특성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18세기 후반부터 개항을 전후한 시점에 건립되었으며 지자체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가치가 높고 바깥채(사랑채)와 안채를 포함한 주생활 영역의 보존이 양호한 신흥 양반주택 6채를 1차 대상으로 하였다.<표 1>²³⁾ 이 중에서 이 지역 민가의 원형인 사랑채와 바깥채가 결합된 ㅁ자형의 평면구조를 지닌 박희석, 정영채, 김정식 가옥 등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주거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가족의 주생활이 이루어지므로 외부 공간으로부터 바깥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안채에 이르는 영역의 연속적 공간특성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1차 대상이었던 정용채, 정영대, 홍승인 가옥 등의 소유주는 신흥양반으로 볼 수 있으나, 전통적인 유교적 조영방식에 의해 건립된 관계로 최종 사례에서 제외하였다.²⁴⁾

<표 1> 경기지역 문화재 지정 가옥(1차 대상 가옥)

지정 단체	구분	NO	가옥명	소재지	건립 연도	비고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123호	이병원	수원 장안 피장	19C중	중류 주거
		124호	정용채	화성 서신 궁평	1887	
		125호	박희석	화성 서신 궁평2	1899	최종연구사례
		126호	김영구	여주 대신 보통	1860	사대부가
		127호	여재연	이천 울면 산성	19C초	원형 변형
		128호	백수현	양주 남면 매곡	19C후	일부 소실
		129호	여경구	남양주 진접 내곡	18C중	사대부가
		130호	궁집	남양주 평내	18C후	최상류주택
		전통건조물	2호	오춘환	안성 양성 덕봉	18C초
	3호	정영대	용인 원삼 문촌	1753		
시도 지정	경기 유형문화재	46호	명성 황후	여주 여주읍 능현	19C후	최상류주택
		105호	이항로	양평 서촌 노문	19C중	원형 변형
	경기민속자료	5호	김병호	양평 용문 오촌	1893	일부 소실
		6호	정원채	황성 남양 송림	19C후	최종연구사례
		7호	김정식	양평 양평 창대	19C초	최종연구사례
	경기문화자료	32호	철종외가	강화 선면 냉정	1850	사대부가
		55호	이천보	가평 상면 연하	1867	안채 소실
		73호	이해룡	안성 서운 청룡	1797	원형 변형
74호	홍승인	화성 정남 문학	19C후			

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된 19채의 전통주택 중에서 사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6채를 1차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송주현,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주택건조물 현황,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 통권 147호, 1989.3 참조

(2) 분석틀의 설정

2장에서 고찰하였듯이 조선 시대의 사대부가는 가정내 남녀의 역할 분담, 남녀유별에 의해 남녀 생활영역의 구분현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사랑영역에서 여성영역인 안마당으로 진입하는 경계면에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행랑채, 내외담 등의 건축적 장치가 설치되었다. 반면에 조선 후기 경기지역에 등장한 신흥양반의 주거는 지역 민가의 기본적 배치를 따르며 유교적 조영 원리보다는 보다 실용적인 공간구성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주거의 안마당은 주생활의 중심영역으로 인접한 안채, 바깥채 등과 보다 적극적인 공간적 관계를 통해 연속된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안마당과 안채 그리고 뒷마당은 여성의 영역으로 연속된 공간을 형성하므로 본 연구자는 안마당에서 바깥채, 바깥마당으로 이어지는 공간적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주거 전체에 나타나는 연속적 공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가옥은 별도의 대문간 채 없이 대문간, 사랑영역, 작업영역(광, 헛간) 등이 바깥채에 통합되어 구성된다. 따라서 바깥채의 각 영역들은 안마당, 바깥마당과 접해 있으며, 주생활의 필요에 따라 각 영역들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이에 따른 건축적 장치가 발달하였을 것이다. 사례 분석에서는 바깥채를 거주영역(사랑방, 행랑방)과 작업영역(광, 헛간 등)으로 구분하여 안마당, 바깥마당과의 공간적 관계를 건축적 장치(퇴칸, 개구부 등)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더불어 안마당의 주생활적 역할과 함께 안마당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연속적 공간 특성을 파악하였다.<표 2>

<표 2> 분석틀의 설정

1. 바깥채와 안마당의 공간적 관계	2. 바깥채와 바깥마당의 공간적 관계	3. 안마당의 역할
a. 바깥채의 거주영역(사랑방, 행랑방)과 안마당의 관계 b. 바깥채의 작업영역(광, 헛간, 등)과 안마당의 관계	a. 바깥채의 거주영역(사랑방, 행랑방)과 바깥마당의 관계 b. 바깥채의 작업영역(광, 헛간)과 바깥마당의 관계	a. 주생활에서 안마당의 역할 b.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연속적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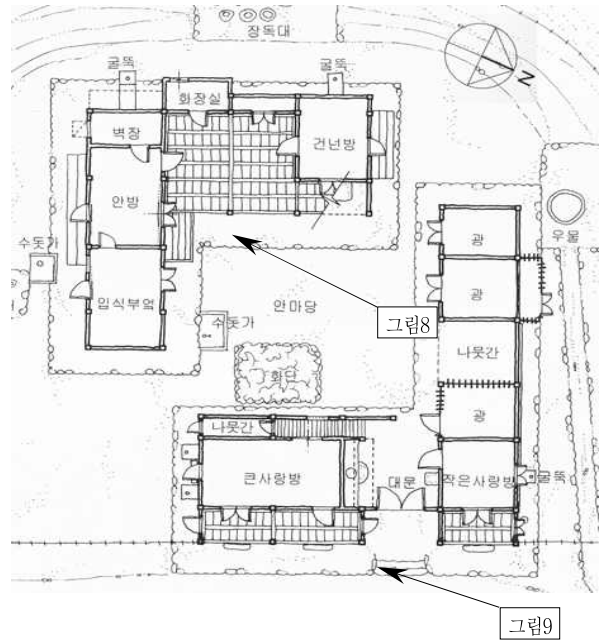
3.2. 사례 분석

(1) 박희석 가옥

1) 개요 : 박희석 가옥은 경기 지역의 민가를 원형으로 하여 주변의 농어업 활동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발전한 전형적인 중농(中農)수준의 주거이다.<그림 7>²⁵⁾ 전면 퇴칸을 지닌 안채는 주(主)문화의 규범을 상징적으로

24) 2장 2절에서 사대부가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였듯이, 이들 세 가옥은 툇짜리를 구성하는 본채(안채, 사랑채) 이외에 별도의 대문간(문간채) 등이 존재하여 독립적인 생활영역이 보다 복잡적으로 나타나며, 남녀의 생활영역이 안채영역과 사랑채영역으로 명확하게 한정되는 등 기존 사대부가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25) 이 가옥은 주변의 바닷가와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한 중농(中農) 수준의 살림살이를 지닌 주택으로 실용적 조영원리와 당시의 상류지향적 주거의 발달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성기, 앞의 책, pp.201-203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2칸 안대청을 지니며, 벽감을 설치하는 등 상류주거 지향적 모습을 보인다. 바깥채는 사랑영역(큰사랑, 작은사랑, 대문간, 광 등의 복합적 구성)을 취하는데, 대문간 양 옆의 큰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의 퇴칸을 완전히 개방하여 바깥마당과 접하게 한 것은 지역 민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7> 박희석 가옥의 평면도

2) 바깥채와 안마당의 공간적 관계 : 바깥채는 대문간과 양 옆의 사랑방들, 광 등의 부속공간으로 구성된다. 사랑방에서 안마당으로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도록 안마당에 접한 사랑방에 문과 쪽마루 등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안마당 영역은 안채뿐만 아니라 남성 영역으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연속된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별도의 행랑방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마당을 중심으로 직계가족 위주의 주생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마당에는 화단과 수돗가 등이 설치되어 사대부가의 안마당과는 차별화된 주생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이에 따라 바깥채에 부속된 광, 나룻간 등도 안마당으로 개방되어 작업영역으로 사용되었다. 요컨대 이 가옥에서 바깥채와 안마당은 주생활적으로 밀접한 공간 관계를 지니며,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바깥채는 연속된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림 8> 안채와 안마당 전경

3) 바깥채와 바깥마당의 공간적 관계 : 바깥채의 큰 사랑방, 작은 사랑방은 바깥마당에 바로 접하며, 외부에 개방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들 사랑방의 전면부는 퇴칸 구성으로 이 지역 상류주거의 누마루 형식을 모방하였는데, 외부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그림 9> 그 결과 남성의 주

생활은 바깥채 전면의 사랑방을 중심으로 바깥마당으로 연속되어 구성된다. 한편 바깥채의 대문간에는 일부 내외벽을 설치하여 외부의 프라이버시에 대응하고 있으며, 광 등의 부속공간은 축적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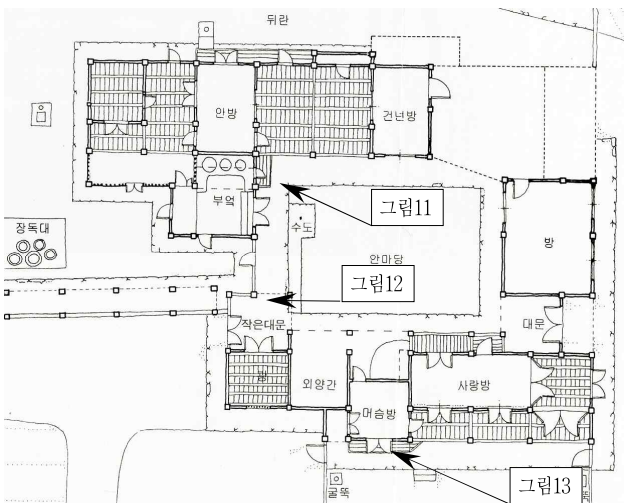


<그림 9> 사랑채 전면의 퇴칸

4) 안마당의 역할 : 주거내의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남녀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각 방들은 안마당으로 어느 정도 열린 공간을 취함으로써 가족구성원에게 연속된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 주택에서 여성 가사활동의 많은 부분이 뒷마당으로 몰려나 수행되고 남성의 작업은 바깥마당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여기에 안마당은 대문간 내외담의 설치로 외부로부터는 어느 정도 폐쇄적이며, 바깥채(사랑방, 광)와 안채의 각 방들로부터 열림으로써 남녀의 주생활의 공동영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²⁶⁾ 요컨대 안마당이 주거내 가사활동의 중심 영역으로 사용됨으로써 전체적인 주거 공간의 연속적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원채 가옥

1) 개요 : 정원채 가옥의 경제적 터전은 송림리 가운데골로 1900년대 초기 농업을 바탕으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건립되었다.<그림 10> 50년 전에 제보자의 시아버지는 사랑에, 시어머니는 딸 6명을 데리고 안방에 기거하였다고 한다. 뜬크자형을 기본으로 하여 생활 규모의 확장으로 사랑채는 방이 부가 되었고 안채는 T자형으로 확장하였다. 안채 뒤편의 확장된 광과 가사노동



<그림 10> 정원채 가옥의 평면도

공간은 확대된 경제규모를 가능하게 하며, 안방 옆의 광

26) 외부인은 주거내로 출입이 제한됨으로써 외부인의 관점에서 사랑채 퇴칸 등의 일부를 제외한 주거내 공간은 폐쇄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안마당은 주거내 프라이버시가 일차적으로 보호되는 1차적 차단 공간이기도 하다.

에서 제보자의 시동생이 거주하는 등 직계가족제도의 정착과 남녀유별사상의 약화를 가능케 한다. 바깥채의 사랑영역 전면에 위치한 사랑마당을 둘러싼 벽돌 담장은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바깥채와 안마당의 공간적 관계 : 바깥채는 거주영역으로서 사랑방과 머슴방, 대문간 그리고 광 등의 부속영역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영역은 모두 안마당으로 열려 있어 안마당과 밀접한 공간적 관계를 유지한다. 우선 주인의 거주영역으로서 두 칸 사랑방은 안마당에 면한 퇴칸 마루를 설치하여 출입이 용이하며, 하인이 거주한 머슴방 역시 안마당으로 열려있다. 외양간과 광 역시 안마당으로 열려 있어 안마당이 하인의 작업영역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그림 3> 요컨대 안마당과 면한 사랑채의 후면은 안마당으로 열린 구조를 취함으로써 이 주택의 안마당은 안채에 부속공간이라기 보다는 가사 노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바깥채로 이어지는 연속된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림 11> 사랑채 전면 퇴칸

3) 바깥채와 바깥마당의 공간적 관계 : 바깥채의 사랑방, 사랑대청, 머슴방은 바깥마당에 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랑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벽돌 담장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사랑방 전면은 퇴칸 구조이며, 머슴방 역시 쪽마루를 설치하여 바깥마당으로의 출입이 용이하다.<그림 11> 그 결과 바깥마당과 바깥채의 거주영역(사랑방, 머슴방)은 연속된 공간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부를 축적하기 위한 광과 외양간은 외부에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에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문간 위쪽의 두 칸 방 역시 안마당에 면하여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4) 안마당의 역할 : 이 주택에서 안마당은 사랑채와 안채를 연결시키고는 있으나 담장, 중문 등의 건축적 장치에 의해 남녀 주생활 영역이 어느 정도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안마당과 뒷마당 사이에 중간문을 설치하여 뒷마당으로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주생활영역으로서 뒷마당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이 주택의 안마당은 사랑채와 안채의 생활영역을 분리시키는 완충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랑채와 안채로부터 안마당으로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의 주생활은 사랑채 전면과 바깥마당에서 이루어지며, 여성의 주생활은 안채와 뒷마당 등의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2>



<그림 12> 안마당과 뒷마당 사이의 중문(오른쪽문) 생활영역을 분리시키는 완충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랑채와 안채로부터 안마당으로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의 주생활은 사랑채 전면과 바깥마당에서 이루어지며, 여성의 주생활은 안채와 뒷마당 등의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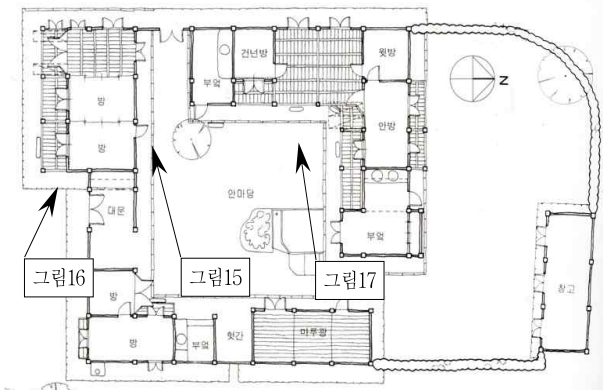
한편 사랑방에서 안마당으로의 출입을 돕는 뒷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사랑채 좌측의 외양간, 머슴방, 광 등의 부속공간이 안마당으로 향해 있어 기존 사대부가와는 달리 남성의 생활영역은 안마당 영역까지도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 가옥에서 바깥마당과 사랑영역의 후면, 안마당, 안채, 뒷마당 등은 주생활이 이루어지는 연속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주거의 작업영역으로서 안마당과 여성의 주생활 영역인 뒷마당과는 중문에 의해 어느 정도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림 13> 안채와 안마당 전경

(3) 김정식 가옥

1) 개요 : 18세기말 건립된 김정식 가옥은 지역의 전답을 관리하고 조세를 거두어들이던 중간계층의 주거로 진한다.<그림 14>²⁸⁾ 안채와 바깥채가 결합된 ㄷ자형의 배치로 바깥채의 사랑영역이 외부에 면하는 전형적인 경기지역 민가의 공간 구성을 취한다. ㄱ자형 안채는 5량 구조로 이루어진 전후 퇴칸의 구조로 공간의 분화와 확장 현상이 뚜렷하다. ㄴ자형의 바깥채는 사랑영역, 대문간, 창고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안채와 사랑채



<그림 14> 김정식 가옥의 평면도

그리고 부속채의 규모를 통해 당시 부농주거의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으며, 사랑영역의 높은 기단, 대청의 사분합문, 팔작지붕 등은 당시 중간계층의 상류 지향적 주거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그림 16>

2) 바깥채와 안마당의 공간적 관계 : 바깥채는 남측 대문칸과 좌우의 사랑방, 그리고 동측의 부속채 영역 등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사랑영역은 두 칸 사랑방, 한 칸 대청, 그리고 전면의 뒷마루를 지닌 격식을 갖춘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문간 건너편에도

작은 사랑방을 설치하였다. 바깥마당에 면한 이들 사랑영역은 모두 출입문과 쪽마루를 통해 안마당으로 직접 왕래할 수 있다.<그림 15> 그 결과 외부공간인 바깥마당에서 사랑영역, 안마당까지 연속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바깥채의 광과 햇간 등의 부속 영역들도 안마당으로 열린 공간 구조를 취함으로써 안마당은 작업영역이자 가족



<그림 15> 안마당을 향한 사랑채의 창호와 뒷마루

의 주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요컨대 이 가옥은 유교적 이념에 따른 격식과 규모를 갖춘 남성과 여성의 고유의 영역을 지니고 있으나 안마당을 공유함으로써 주거 전체가 연속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3) 바깥채와 바깥마당의 공간적 관계 : 바깥채의 큰 사랑영역은 전면 퇴칸 구조를 통해 바깥마당과의 공간적 연계가 뚜렷하며, 건너편의 작은 사랑방도 출입문과 쪽마루를 통해 바깥마당과 연계되어 있다.. 한편 바깥채의 햇간과 창고로 사용될 수 있는 마루광 등은 외부에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칸 대문칸에는 내외벽을 설치함으로써 가족영역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요컨대 가족 생활의 중심 영역으로서 안마당은 외부적으로 다소 폐쇄적으로 구성된 반면에 주거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바깥채의 사랑영역은 외부에 개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6> 큰 사랑채 전경

4) 안마당의 역할 : 바깥채의 사랑방의 후면이 안마당과 연결됨으로써 안마당은 가족생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그림 17> 이러한 안마당의 기능은 기존 사대부가에서 여성의 전용 공간이었던 안마당과는 다른 것으로 당시 신흥 양반주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²⁹⁾ 이 가옥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활영역은 사랑채와 안채로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으나 안마당으로 주생활이 통합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관점에서 이들 영역은 연속된 공간으로 인식된다. 또한 여성영역인 뒷마당은 안채의 부엌 아래쪽의 통로를 통해 안마당과 연결된다. 그 결과 이 주택의 바깥마당에서 주거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공간인 뒷마당까지 전체적으로 주생활과 결합된 연속된 공간을 형성한다.



<그림 17> 안채 전면

27) 외부인의 관점에서 이 주택은 사랑의 일부 영역만이 개방되어 있으며, 여성 영역은 매우 폐쇄적으로 인식된다.

28) 경기도 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4권 중요전통민가편, 경기출판사, 2003, p.249

29) 반면에 외부인은 바깥마당과 사랑채의 일부 영역까지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나 대문에 설치된 내외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안마당으로의 출입은 제한된다.

27) 외부인의 관점에서 이 주택은 사랑의 일부 영역만이 개방되어 있으며, 여성 영역은 매우 폐쇄적으로 인식된다.

28) 경기도 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4권 중요전통민가편, 경기출판사, 2003, p.249

29) 반면에 외부인은 바깥마당과 사랑채의 일부 영역까지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나 대문에 설치된 내외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안마당으로의 출입은 제한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조선 후기 경기지역 민가를 원형으로 발전한 신흥 양반주거에 나타난 연속적 공간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들 전통주거는 농업 등의 생업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유교적 조영원리에 의한 남녀간, 주중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공간적 단절보다는 주생활과 결합된 연속적 공간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깥채를 중심으로 인접한 바깥마당, 안마당과의 공간적 관계, 안마당의 주생활적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연속적 공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3 참조>

<표 3> 결과 분석표(○ 밀접한 공간 관계, × 관계 없음)

	공간연결관계	바깥채의 거주영역		바깥채의 작업영역(광, 헛간)	안마당의 역할
		사랑방	행랑방		
박희석 가옥	안마당	○	행랑방	○	안마당은 가족간의 주생활의 중심영역으로서 주거내 연속된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바깥마당	○	없음	×	
정원채 가옥	안마당	○	○	○	안마당은 남녀 고유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완충적 역할을 수행함. 즉, 안마당은 바깥채와 연속된 공간을 형성하면서 뒷마당과는 분리됨
	바깥마당	○	○	×	외부에 폐쇄적인 안마당은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서 가족생활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며, 여성영역인 뒷마당과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연속된 공간을 형성
김정식 가옥	안마당	○	행랑방	○	
	바깥마당	○	없음	×	

첫째,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바깥채의 각 영역과 안마당은 상호 긴밀한 공간적 관계를 취하며, 그 결과 안채와 바깥채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안마당으로 인해 연속적 공간 특성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사랑방에 거주하는 바깥주인은 후면의 창호와 텃마루(쪽마루) 등을 통해 안마당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다. 또한 바깥채의 광, 헛간 등과 행랑방 등의 부속영역들 역시 안마당으로 열린 공간 구조를 취한다. 이와 같은 안마당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방적 성격은 이전의 전통적인 양반주거에서 여성 전용공간이었던 안마당의 역할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환연하면 기존 사대부가에서 여성 전용공간인 안마당으로 인해 공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이들 신흥 양반주거에서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연속된 공간 특성이 나타난다.

둘째, 전체적으로 바깥채는 가족생활의 중심영역인 안마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바깥채의 사랑영역은 외부에 상당히 개방적인 구조를 취한다. 주거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랑영역은 텃마루, 분합문 등의 건축적 장치를 통해 외부와 긴밀한 연결 관계를 지닌다. 반면에 바깥채의 나머지 공간들(광, 헛간 등)은 안마당으로만 열린다. 대문간을 통해 외부에서 안마당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하지만 내외벽 등을 설치하여 안마당으로의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부연하면 기존 사대부가의 바깥채는 주거 보호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여 주변 환경과 내부공간이 단절되었으나 이들 신흥 양반주거에서 바깥채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환경과 교류함으로써 내외부공간의 연속적 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신흥 양반주거에서 안마당은 남성과 여성의 생활 영역의 매개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노동력이 집중됨으로써 주거내 연속된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깥채의 사랑 영역뿐만 아니라 광, 외양간 등의 부속공간 역시 안마당으로 열린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안마당이 주거내 가족생활의 중심이자 작업 영역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신흥 양반주거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된 생활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주생활의 필요에 따라 주거 내부의 전체 공간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연속된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상으로 신흥 양반주거에 나타난 연속적 공간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신흥 양반주거의 연속적 공간 특성은 이전 사대부가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발전 과정에 따른 실용적 주생활의 발전의 결과이며, 그에 따른 안마당의 공간적 변용과 관련이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경기 지역의 민가를 원형으로 발전한 신흥 양반주거의 특성을 고찰한 것이므로 보다 다양한 출신 성분의 주거공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4권 중요전통민가편, 초판, 경기출판사, 경기도, 2003
2. 김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초판, 시공문화사, 서울, 1999
3.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1, 초판, 지식산업사, 서울, 1995
4. 조성기, 한국의 민가, 초판, 한울아카데미, 서울, 2006
5.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초판, 일지사, 서울, 1994
6. 안병태, 한국 근대 경제와 일본 제국주의, 초판, 백산서당, 서울, 1982
7. 홍영옥, 한국주거사, 초판, 민음사, 서울, 1992
8. Klotz, Heinrich, 양동양 편역, 현대건축론, 초판, 기문당, 서울, 1984
9. Rowe, Colin, 윤재희, 지연순 역, 근대건축론집, 세진사, 서울, 2008
10. 최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11. 박형진, 류호창,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한 주거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3
12. 김종현, 주남철,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2권 2호, 1996.2
13. 성우철, 서양건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6호, 2006.6
14. 송주현,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주택건축조물 현황,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 통권 147호, 1989

[논문집수 : 2014. 10. 29]
 [1차 심사 : 2014. 11. 21]
 [2차 심사 : 2015. 01. 06]
 [게재확정 : 2015. 02. 24]